

여수 출신 '골든 벨 소녀' 83가지 꿈 실행 중



“꿈을 이루려면
꿈 목록을
꼭 써보세요”

여행가·작가·기업인·강연...
'드림 파노라마' 김수영 대표
80여개국 여행 꿈·사랑 전파
“어디로 향해 가느냐가 중요해”



지난 2012년 3월, 41번째 꿈인 에베레스트 베이시캠프 트레킹을 마친 김수영 드림 파노라마 대표.

여행가, 작가, 강연가, 기업인, 콘텐츠 제작자, 작사가... 사회적 기업 '드림파노라마' 김수영(35) 대표의 직업은 10여 개를 헤아린다. 그녀는 10대 시절에 '문제아'로 방향하기도 했으나 20대에 자신의 '꿈' 목록을 작성한 후 '지구별' 80여개국을 여행하며 이를 하나하나 이뤘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며 '꿈 멘토', '꿈 전도사', '드림 메이커'(Dream maker)라 불리고 있다. 최근 자신의 꿈 도전 이야기를 담은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개정판(플리스 에디션)을 펴낸 '꿈꾸는 유목민' 김 대표를 서울 마포구 DMC 디지털 미디어센터 한 커피숍에서 만나 '꿈'과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이러 공주'라고 칭하면서 춤을 추는 당돌함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요즘 강연하러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학교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학업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감싸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꿈꾸는 유목민' 73개 꿈에 도전= 김 대표는 2005년 대학 졸업 이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좇아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대학졸업 후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애널리스트로 입사했으나 수개월 후 직장에 사표를 내고 영국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런던대 석사과정을 마친 후에 세계적 정유회사인 로열더치셸 영국본사에 들어가 연 800만 달러의 매출을 책임지는 카데그리매니저로 일하던 그녀는 직장을 떠나 다시 한번 도약한다.

이때 그녀의 결단은 바로 '꿈'에서 비롯됐다. 골드만삭스 입사 때 신체검사 과정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자 그녀는 '만약 1년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떠올리며 살면서 하고 싶은 73개의 '꿈'을 담은 목록을 작성했다. 첫 번째 꿈은 '인생의 3분의 1은 한국에서 살았으니, 다음 3분의 1은 세계를 돌아다니고, 마지막 3분의 1은 가장 사랑하는 곳에 정착하겠다'는 것이었다. 꿈 목록을 작성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 그녀의 꿈은 매년 업데이트하며 73개에서 83개로 늘어났다. 당초 작성했던 꿈 목록 가운데 68개의 꿈에 도전했다. 2005년 목록에는 '볼리우드(Bollywood) 영화출연' 등 모험과 성취, 건강 관련 꿈이 많았던 반면 올해 목록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후원하기' 등 공동체와 창조, 라이프 스타일 관련 꿈이 많아졌다. 특히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챙겨주기'와 같이 목표 기한이 '평생'인 꿈들이 늘어났다. ◇꿈과 사랑 프로젝트 추진=로열더치셸을 떠나 그녀가 추진한 것은 '드림 파노라마'(2011년)와 '러브 파노라마'

(2013년) 프로젝트였다. 김 대표는 런던에서 중동을 거쳐 서울까지 꼬박 1년간 25개국 92개 도시를 비행기와 나다, 인력거 등으로 옮겨다니며 67개 국적의 4~87세 365명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답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꿈 프로젝트를 마치고 1년 뒤, 실연의 아픔을 겪은 그녀는 다시 배낭을 꾸렸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며 살고 있을까?" 이번에는 '사랑'이 테마였다. 13개월간 22개국 43개 도시 6~76세 127명에게 '사랑'에 대해 물었다. 미국 시애틀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실연하면) 아픈데 사람들은 왜 사랑에 빠지는 걸까요?"라는 김 대표의 질문에 "심장은 뇌만큼 똑똑하지 않으니까"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요즘 강연 외에도 노랫말 짓기와 동화 쓰기를 통해 자신의 꿈 도전과 함께 '꿈 멘토'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세 번째로 가사말을 지은 '떠나올라'(아랍어로 '가자'는 의미)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랍풍 트로트 댄스곡이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판타지 소설 '꿈을 요리하는 마법 카페'(가칭)도 출간할 계획이다. /서울=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19홀'은 규범 깨고 미래로 도약하는 열정

임원식 광주시인협회장, 시집 '19홀은 있다' 펴내



"이번 시집을 저 너머의 세상에 게시는 문명란 시인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18홀을 넘어 19홀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광주시인협회장을 맡고 있는 우전 임원식 시인이 열세 번째 시집 '19홀은 있다'(시와사람)를 펴냈다. 작년에 열두 번째 시집 '다들이질 하는 누이'를 펴낸 지 일 년 만에 신작시집을 펴낸 임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주목한다. 골프장의 홀이 18홀에서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19홀'은 규범을 깨고 미래로 도약하려는 열정을 상징한다. 특히 이번 시집에는 작년에 타계한 문명란 시인이 쓴 해설이 수록돼 있어 눈

길을 끈다. 임 시인은 늦깎이 등단의 미진함을 만회하듯 열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통의 시인들이 수년 내지 10년을 주기로 한 권의 시집을 간행하는 양상과는 다른 행보다. 현대 사회의 다양성에 비취볼 때 다작은 과작의 희소 가치와는 다른 생명력을 낳는다. 이번 시집에서 임 시인은 '산', '꽃', '나무', '들녘' 등 자연을 소재로 정감어린 시심을 풀어낸다. 순수한 원시적 생명 세계에 대한 노래는 자연의 대상으로 수렴된다. 한편으로 시의 지평은 미래를 위한 도약의 근거로도 확장된다. "골프장의 홀은 18홀에서 끝난다/ 18

홀까지 몇 타를 쳤느냐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한 홀만 더 칠 수 있다면?/ 다 잡은 우승을 놓친 골퍼가/ 속으로 외쳐봐도/ 19홀은 없다" '19홀'을 꿈꾸는 것에서 모든 시인의 시적 성취를 향한 아심은 간단치 않다. 문명란 시인은 "교만부리는 토끼를 추월한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도 "그의 승부사적 기질은 햄릿형이 아니라 돈키호테형"이라고 평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양정태 한국서도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제 38회 원곡서예문화상...광주 출신 첫 수상



지역 서예자본 확대에 힘쓰고 있는 송남 양정태(79) 한국서도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이 제38회 원곡서예문화상(상금 1000만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원곡서예문화상은 서예가 원곡(原谷) 김기승(1909~2000) 선생이 후학 양성을 위해 1978년 제정했다. 원곡 선생이 별세한 이후 원곡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80년 순천 복인 전중주, 2013년 진도 청농 문관호 선생이 받은 적은 있지만 광주 출신으로는 양 지회장이 처음이다. 1973년 서예에 입문한 양 지회장은 남룡 김용구, 송파 이규호 선생을 사사했다. 지난 1983년부터는 송남서예원(광주시

동구)을 설립해 서예 연구와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상, 한국서도문화상 등 각종 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서예협회 광주지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7년 한국서도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창립한 이래 초대 지회장을 맡아 현재까지 10년간 이끌고 있다. 2008년부터는 광주·전남서도대전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출품을 독려하기 위해 매년 각 시·군을 방문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양 지회장은 "기대도 하지 않은 상을 받게 되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긴다"며 "개인이 아닌 이 지역 서예인들에게 주는 상으로 알고 상금은 서예 발

전을 위해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원곡 선생은 죽기 전까지 서예 교본을 놓지 않은 분이였다"며 "후배 서예인들도 그 뜻을 이어 받아 기본에 충실하면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후 5시 서울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다. 한편, 제7회 원곡서예학술상 수상자는 서울 출신 산돌 조용선씨다. 원곡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2010년 제정한 이 상은 서예분야 학술적 역량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매년 수여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일보 지사·지국 안내

광주시내(062)	전남(061)·전북(063)
북구	동부권
동광 264-2012	고흥군 842-2121
문흥 266-1960	곡성군 362-8111
북광주 525-3761	구례군 782-4696
신안 222-8171	광양시 792-8111
양산 571-7658	보성군 852-9646
양치 266-7601	순천시 746-8111
오봉 522-7752	여수시 692-0997
우산 512-8116	남부권
중흥 654-2985	나주시 335-5501
중남 222-9440	강진군 434-6830
동동 222-9054	담양군 383-8116
동중 225-6001	영암군 471-1717
중부 222-1896	장성군 394-0400
중장 222-8171	장흥군 863-8822
남부 652-0175	화순군 374-4423
남백 651-1833	서부권
봉선 675-5530	목포시 276-9200
하월 675-6605	무안군 452-8535
진월 671-7276	신안군 278-8111
광천 382-5788	영광군 351-1004
상무 372-2352	완도군 554-6677
서광주 369-0583	진도군 543-0100
운천 376-7153	함평군 324-8111
치평 376-6511	해남군 537-6767
중앙 803-0311	전북권
화평 369-0583	군산시 467-2500
월곡 941-9174	정읍시 531-5544
첨단 973-2900	순창군 652-1920
하남 959-1500	남원시 626-1601
광산 944-0444	고창군 010-2815-2267
	부안군 582-8118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여행구독 220-0550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스(D) 대신프리모